

평화(平和, Pax, Peace)

가톨릭 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 진리, 사랑 및 평화다. 성서적으로 볼 때 인류는 피부색, 언어 관습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다양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 서로의 이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치는 평화의 증진이라는 공통된 갈망을 낳게 하였다.

가톨릭시즘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는 정치의 방법, 힘과 이해관계의 균형으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마음, 사랑, 평화의 활동으로써만 얻어진다. 오늘날 인류는 이 위대한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역사 발전에 그렇게 많이 작용해온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정신을 교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류의 공동선(共同善)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법칙에 지배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평화는 언제나 꾸준히 건설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복지가 안전하게 확보되고 사람들이 정신과 재능을 서로 신뢰로써 나누지 않고서는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타인과 타국민, 그리고 그들의 품위를 존경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의 성실한 실천이 평화 건설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평화는 정의의 내용을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이다. 현세의 평화는, 이웃에게 대한 사랑의 결과이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며 결실이다. 강생(降生)한 그리스도는 평화의 임금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당신 육신 안에서 미움을 죽이고 부활로 현양(顯揚)되시어 사랑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 주었다.

인간 사회가 아무리 탁월하게 하느님의 나라의 모상을 반영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도움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가혹한 수난(受難)과 죽음으로써 불화, 불행, 불균형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씻어 없애실 뿐만 아니라, 자기 성혈(聖血)으로써 전인류를 천상성부와 화해시키고, 평화의 과업을 부여하였다. 부활시기의 거룩한 전례(典禮)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알렐루야. 하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고 평화를 남겨 주었으며,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고 말씀하였다.

평화는 아름다운 것이나 동시에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얻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여 어떤 이는 평화를 꿈, 신화, 유토피아(Utopia)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저절로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그것은 많은 계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야 하고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이의 선(善)이므로 평화를 유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협조해야 한다.

인간학(人間學)의 실제적, 결론으로서 인류역사와 인간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신비로운 원인들이 있다. 그 때문에 평화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비판적 해결책에 위협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보다 행복스러운 해결책에 대한 위무와 희망을 느끼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 부르며, 그것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리라”한 산상수훈(山上垂訓)의 일곱째 행복은 기억할 만하다. 평화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축하이며, 성서적 축원(祝願)으로서 항상 우리 마음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신비롭고 마를 줄 모르는 평화의 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존재하므로 이 평화는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가능한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신뢰를 갖도록 교육시키려는 투신에 활발성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타인을 침략자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의 협조자로 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인류가죽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는 지향이 필요하다. <가톨릭 대사전 중에서>

2009년 4월 11/12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27.00
부활성야헌금 : \$ 665.00
182(40) 184(50) 188(20) 191(20) 194(20) 195(20) 196(20) 199(30) 201(10) 202(20) 203(10) 205(20) 206(20) 207(50) 208(30) 209(5) 214(20) 216(20) 219(10) 222(100) 224(50) 226(20) 231(20) 233(20) 236(10)
부활절감사금 : \$ 735.00
182(40) 184(50) 188(20) 191(20) 193(50) 194(20) 195(20) 196(50) 199(20) 201(10) 203(5) 205(20) 206(20) 207(60) 209(10) 214(10) 217(10) 218(40) 219(10) 221(20) 224(50) 226(50) 230(20) 232(10) 233(20) 234(10) 235(20) 236(20) 237(5) 239(5) 246(20)
성전건립 : \$
소성당 : \$ 1000.00 (무명)
합 계 : \$ 3227.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저희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서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생활과 기도 속에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하루속히 당신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과 형제애를 보이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당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삶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이들이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오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세 번)

본 당 소 식

◎ 4월 구역모임

워털루 4구역 25일(토) 오후 6시 고영호형제집

◎ 집에서 사용할 초 판매합니다.

친교 식사 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5 이며(정상이 판매), 구입한 초는

신부님께 축성을 받으십시오.

◎ 주일학교 등록 및 문구 용품 Donation

- 주일학교 대상: 주니어 (JK ~ 2학년)

시니어 (3 ~ 6학년)

- 문의: 노재현 아킬레오 ☎ 519-590-4493

◎ 바뇌의 성모 기도회 모임 안내

4월 24일(금) 오후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로고스회(성경공부) 모임

4월 22일(수) / 5월 1일(금) 평일 미사 후

지금 오셔도 환영합니다. 진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Garage세일 안내

오는 5월 9일(토) 오전 8시부터 St. Atony Daniel 성당과 함께 Garage 세일을 합니다. 세일 아이템을 기증하실 교우는 성모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 어야 합니다.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6월부터 시작하는 성탄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추정 신자 수는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사정상 못나오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적극성을 갖고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오늘 미사 후 예비자 교리 있습니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소성당, 사제관, 뒤뜰의 정원손질 등 교우들의 자발적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자원하시는 교우는 관리분과장에게 연락주세요.

문의 : 이명희 스테파노 ☎ 226 338 0679

◎ 오늘 미사 후 단체별 사진 촬영있습니다.

St. Anthony Daniel 성당 사진 담당자가 너무 늦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당 사진집에 우리 본당 단체 사진을 수록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협조 가능한 단체는 협조바랍니다.

▶ 어제(4월 18일) St. Anthony Daniel 성당 주변 정리에 참여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는 성전건립기금 내는 날입니다

■ 본당신부 단상(斷想)

저는 가톨릭 신자이며 사제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진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가톨릭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역사도 좋고, 조직도 잘 갖춰 있어서 뿌듯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신학은 신앙과 달라서 어려운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해도 알듯 말듯한데 창조주 하느님을 인간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내려니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학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신앙에 도움이 되니 공부할 게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설픈게 아는 것을 갖고 천문가행세를 하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책 몇권 읽은 것으로 신학을 다 아는 양, 하느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연구하지 않는 교수나 의사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사제는 끊임없이 하느님에 관한 공부해야 하고 하느님과 대화(기도)를 해야만 하느님에 관한 올바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릇이 작아서 하느님을 담기는 어렵지만 주위에 받아들이기만 한 협조자들만 있다면 말씀의 해박함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릇에 하느님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18호

2009. 4.19.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전례

해설 이명희 차주 해설 김용하

성가
입당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봉헌 (214) 주께 드리네
성체 (165) 주의 잔치
퇴장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화답 송 ◎ 주님은 줄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독서	서
4월 19일	김현태	김진선
4월 26일	고영호	고기숙
5월 3일	정경래	정문진

	봉헌	헌
4월 19일	최우석	최연옥
4월 28일	김현태	김진선
5월 3일	고영호	고기숙

	복사	사
4월 19일	김근영	이수민
4월 26일	박규환	김건우
5월 3일	류지현	이현재

	친교	교
4월 19일	백합팀	4월 26일 신비팀
5월 3일	환희팀	5월 10일 영광팀